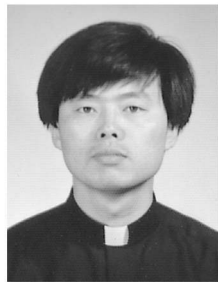


주일의 말씀

자랑스러운 삶, 곧 하느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삶의 이야기를 들은 오늘

박진수 시메온 신부
초전성당 주임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가장 즐겁고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내용을 선포하도록 마련해 준 이사야서의 구절 곧 다양한 인간의 상황들을 (가난, 유배, 눈먼 이들, 억압받는 이들) 통하여 생명 혹은 죽음을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계획이 가득한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대는 거기에 실패의 한 모험이 존재하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절호의 기회도 내비칩니다. 특히 이 절호의 기회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주는 하느님의 참된 말씀의 종의 신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가난은, 우리가 이사야와 루카의 예언 직분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망라하는 결정적인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어떤 열정을 마음으로 지녀도 된다면, 그것은 역사의 잊혀진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한 열정일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기에 '그 불이 이미 타오르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카 12,49) 그리고 또 하나의 열정은 당신 손수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영에게 순명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용기와 겸손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할 바 없는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기쁘게 체험케 해주므로 이치롭고 백합니다.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시편 119,97)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레 15,16)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던 그날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 12,1) 이와 꼭 같이 우리도 저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 즉 약속된 땅, 우리의 나라, 우리의 모험을 향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지칠 줄 모르는 순례자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로 탐색을 계속해 나아갑시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불타오르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루카 1,21 참조

느헤 8,2-4, 5-6, 8-10 1코린 12,12-30 루카 1,1-4; 4,14-21.

미신(迷信) 4

- 오늘의 운세 -

하, 요거 볼까? 말까?

교구 사목국

정리해 볼까요.

외교인들은 주술적인 어떤 의식 예컨대 마술, 주술, 사주, 점술 등을 하면 신(神)의 힘을 빌릴 수 있고 그리하여 자신의 미래 사정이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우리 삶의 온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 해주기”(히브11,1)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삶의 십자가를 구원을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히브5,7-9) 이런 신앙인이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초조, 현실에의 과도한 집착 그리고 파괴적인 자기연민이나 절망에 사로잡히진 않겠죠. 구약의 사울은 처음엔 점쟁이들을 다 쫓아냈지만 믿음을 잃고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히자 결국 무당을 다시 찾는 어리석음을 범했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1사무28, 3-20)

만일 누가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주나 관상, 점을 친다거나, 운수(운명)를 바꾸기 위하여 작명(作名)한다거나 토정비결을 본다면 그것은 분명한 미신행위입니다. 중세기에는 점을 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주시대를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주, 관상, 택일, 작명등과 같은 미신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헛똑똑이인가……. 헛~ 참!

바울로사도는 이렇게 꼭 짚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골로2,8)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사탄아 물러가라!”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여 유혹에 빠질 수 있고 헛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삶의 꽃대를 굳게 세워나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의 다음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신을 알고 자기의 비참(悲慘)을 모르면 오만(傲慢)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비참만을 보고 하느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중용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비참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주보에 계속됩니다.)

다시 보이는(?) 울엄마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미사

연중 제3주일

입당성가

6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화답송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지요.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 없으리라.

파견성가

46 사랑의 송가

영성의향기

:: 영적 독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추억도 일깨우고 희망도 일으키고 상상력도 부추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읽는 것, 성독, 렉시오 디비나에 많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영적 독서의 대상은 성경이나 그 해설집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서 인간이 하느님께 말을 건네는 일이라면 영적 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성무일도서가 시편과 교부들의 성경해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영적 독서를 하는 일은 구세주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의 빛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뵈 수 있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에 비추어 보듯 하느님을 볼 수 있는데 그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과 영성가들의 가르침, 이웃 사랑 등입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글 길은생각

종교수업



한 방문객이 교장에게 “이 학교 교과일정에 언제 종교를 가르치게 되어있습니까?”라고 묻자 교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가르칩니다. 수학기간에는 정확성을 통해 종교를 가르치고, 언어시간에는 우리가 뜻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법을 통해 가르치지요, 역사시간에는 인간성을 통해 종교를 가르치고, 지리시간에는 지성을 넓혀줌으로써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예시간에는 섬세함을 통해, 또 천문학기간에는 경외심을 통해 가르치지요. 그런가 하면 운동장에서는 정정당당한 시합을 통해 가르치지요, 그 밖에도 동물에 대한 사랑을 통해, 타인에 대한 예의범절을 통해, 서로를 대하는 훌륭한 몸가짐을 통해 가르치지요. 어린이들한테는 우리 어른들이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종교를 가르친답니다.” 

- 윙커온 글입니다. -

박형진(아오스딩)신부 퇴임감사미사

• 일시: 1.31(일) 15:00, 장소: 봉덕성당

★ 모임 · 행사 ★

2010 살레시오성소과정 '저희와함께묵으십시오'(루카 24, 29)

- 장소: 대전 정림동 공동체, 대상: 성소에 관심 있는 형제님들
- 날짜: 1차 2.4(목)~5(금)/ 2차 2.5(금)~7(일)
- 대상: 1차 중1~예비교2/ 2차 예비교3, 대학생, 일반(30세미만)
- 문의: 02-831-3068 / 성하윤수사 011-894-1332

선교훈련 시그마코스 13기

- 일시: 3.12(금)~14(일)
-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개인 또는 단체)
-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08

IMD '마음을 주었습니다' 연극공연

- 일시: 1.29(금) 19:00, 장소: 경산성당
- 문의: 경산성당 813-0516 / 010-3508-8254
- ※ 이남수익금은새터민,다문화가정돕기에쓰여집니다.

★ 모집 · 교육 ★

성경성당 식관 자매님 모집 (054-749-8900)

계산서원 직원모집(257-8962)

- 채용서류: 이력서, 교적사본(25세미만미혼여성)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직원모집

- 분야: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 문의: 성가요양원(054-976-8122)
- 마감: 1.27(수)(www.sug.or.kr)

선교센터 사무직원 모집

- 대상: 실업계정보통신고등학교 이상PC 능숙한 자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781-6100)

가톨릭 신학원(대명동) 주방직원 모집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입주자우선)
- 문의: 626-5001 / 656-1690

아버지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신 구약4년과정)

- 모집기간: 12.1(화)~2.15(월)
- 대상: 가톨릭 신자 누구나
- 원서접수: 직접 방문 또는 메일이나 카페
- 메일: osbible@hanmail.net / daum카페.아버지성경학교
- 문의: 815-7888(fax 겸음) / 815-0337/ 815-1114

아버지 성경학교 거룩한 독서반 모집

- 일시: 매주 수, 목 10:00~12:30
- 접수: 1.2(토)~2.23(화), 면접: 2.21(일)~23(화)
- 대상: 아버지 성경학교졸업자, 동등한 자격자
- 내용: 마태오복음
- 문의: 아버지 성경학교 교육관 815-1114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부동산 경, 공매 채테크과정 30만원
- 개강: 2월18일 매주 수, 목 오전 10-1시/ 오후 7-10시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평생교육원
- 문의: 568-9800 / 010-4161-4443

취업/창업/봉사자위한 장제지도사교육생 모집

- 7.17(토) 자격검정시험대비(연령, 성별, 학력 무)
- 취업반(20대~40대)/창업반/봉사반(40대이상)
- 문의: 대가평교원526-3413 / 010-4142-4414

2010학년도가톨릭사지대학신입제위탁교육생(대구반)모집

- 모집학과: 사회복지와(아간)
- 모집기간: 12.10(목)~1.26(화)
- 교육장소: 대구(시립회광명)-지하철대곡역에서150m
- 입시문의: 입시홍보처054-851-3021~2

살레시오회보스소직업전문학교학생모집

- 대상: 만15~26세 남자(02-828-3600)
- 교육내용: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가공, 인성교육
- 특징: 교육비 · 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교감반운영, 방통교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 접수: 2.25(목)까지 수시접수, 면접전형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신입생 모집

- 접수: 11.9(월)~2.12(금)(우편신청가능)
- 문의: 02-745-8339(자) / 02-747-8501~5(교)
- 대상: 세례받은평신도,수도자(만18세이상,학력제한 없음)
- 내용: 신구약성경및신학일반(그리스도론,전례학등26과목)
-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원서다운 가능)

학산아간중고등학교 2010년신입생모집

- 모집기간: 1.11(월)~3.31(수), 2~3월기초수업, 4월입학식
- 대상: 중고등 미졸업자 / 월-금 18:30~21:00
- 과장: 중고등(2년)검정고시대비(국,영,수,사,과,국사)
- 수강료: 무료,사진장,등본,수급자증명서1부(해당자)지참
-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월성2단지내 634-7230

티업오신 마리아 성심 재속 3회원 모집

- 일시: 매일 넷째주 화 10:00~17:00(첫모임-1.26(화))
- 장소: 성모당 무료실로 교육관
- 자격: 성모님을 사랑하는 55세 이하 신자
- 접수: 010-2635-0534 / 010-9620-4820

2010년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살고자 하는 분
- 대상: 만53세 이하, 문의: 632-9800
- 봉헌미사: 3.13(토)14:00, 장소: 월배성당

성바로 안나의 집 가족 모집

- 입소대상: 만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신변자립이 가능한 모든 노인
- 입소비용: 생활비 월 374,000원 (보증금500만원)
- 구비서류: 건강진단서(보건소),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054-382-1634 / 054-383-5570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1급(국가자격증취득반) 1기 개강

- 기간: 2.22(월)~4.2(금) / 주5회6주(240시간)과정
- 접수기간: 2.1(월)~5(금)5일간 / 내방접수
- 장소: 교구청 교육원가동3층 / 255-7221,2
- 대상: 요양보호사활동에관심있는분 선착순30명

제5기 '세상속의 영성수련, 교육 안내

- 일시: 2.10,4.14 매주(수)20:00-21:30
- 장소: 범어성당(수강료:7만원)
- 예수는 누구인가/믿는다는것/기도란 무엇인가?
- 묵상,1,2/판상/원리와기초/성찰/영의식별,1,2
- 문의 및 접수: 대구CLC 793-3555

★ 안내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02-764-4741,3(http://www.성가정임양원.com)

'제11회 PBC창작생활성가제' 공모

- 접수마감: 2.19(금), 본선: 5.15(토) 19:00
- 서류: 참가신청서,악보(9부)참가곡CD(Tape),사진(1장)
- 주최: 평화방송 · 평화신문
- 문의: 02-2270-2323,2612(www.pbc.co.kr참조)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월 25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26일(화) 오후 2시	성모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25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바노의 성모님 미사	1월 28일(목) 오전10시	삼덕성당당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1월 25일(월) 낮 12시	성모당	공소후원회 미사	1월 30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밝은 눈 안과

원장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전문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교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하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미소인치과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송선희(안나)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 · 목 ▶ 야간진료)

강북 행복을 만드는 치과

Happy Dental Clinic

화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터

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323-2875

원장:고상철(베드로), 조진석

달성피부과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탈모
2F 여드름,흉터 3F 비만,미용수술



손재경 다미야노

김인주 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민을 수 있는 의료용품 전문점

대 학교 의료기

가톨릭병원 구관 앞 (대학악국 내)

김중수(베드로) · 윤점순(안젤라)

☎ 624-6844, 011-544-6544

우리간판/LED/프레이즈전문제작

보석같은 간판제작 (주)동서상사

간판프레이즈, 시트,FLEX
전기자재, 아크릴, 판재류

전문유통

박종석(야고보) H.P 010-3526-5631

Tel. 054973-2945-9 철곡근 가산면 다부리 457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sb.co.kr)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